

오늘의 주요기사

2022년 07월 07일 (목)

순서	제 목	매체	카테고리	페이지
1	전주대-전북도립미술관, 실감 미디어 전시회 개최	전민일보	문화	1
2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 전시회 열어	전북연합신문	스포츠·문화	2
3	전주대, 실감미디어 전시회	전주매일	경제·사회	3
4	전주대, 실감미디어 전시회 개최	전라매일	교육&문화...	4
5	전주대학교'실감미디어 전시회'개최	전주일보	오피니언	5
6	미디어파사드로 보는 기후위기, 메타버스로 체험하는 동학	전북금강일보	문화	6

전주대-전북도립미술관, 실감 미디어 전시회 개최

전주대와 전북도립미술관이 여름방학을 활용해 학기 중에는 쉽지 않은 집중 프로젝트 수업과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시회에는 전주대, 건국대, 계원예술대, 계명대 등 대학 재학생 32명, 실감미디어 관심 일반인 7명, 미디어파사드 전문가 6명, 도내 실감미디어 관련 기업 3개사가 함께 한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게임, 역사, 관광, 시각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단장 한동승)은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실감미디어 전시회'를 개최하고 8일 총 45시간 동안 진행된 집중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 10점을 일반에 공개, 시연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가 일반 관객들이 사회문제 및 지역 문화 소재가 실감미디어 콘텐츠의 핵심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감미디어〉 집중프로젝트 수업은 '소셜리빙랩'과 '로컬콘텐츠' 2과목으로, 학생들이 전문가, 업체와 함께 실감미디어 프로젝트를 기획/개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참여 학생들이 전공과 학년별

차이를 극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10개 팀에 각각 전문가를 배정하여 협업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글로벌 기후 위기와 동학운동이라는 테마를 이해하고 이를 메타버스와 미디어파사드를 비롯한 실감미디어 혁신 기술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표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로컬콘텐츠실감미디어〉 프로젝트 수업은 전북지역의 동학과 관련된 소재를 통해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했다. 4개의 프로젝트팀은 각각 동학농민운동 투어, 주요 격전기 기반 방 탈출 게임, 숨겨진 인물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모험,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가상 메타버스 콘텐츠로 기획했다.

〈소셜리빙랩실감미디어〉 프로젝트 수업은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이슈를 미디어 파사드 기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집중하였다.

전북도립미술관 건물 3동 벽면에 대형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나 영상 등 콘텐츠를 투사하여, 관객들이 글로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총 6개 콘텐츠를 하나의 주제 의식에 맞춰 연결되며, 약 50분 동안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김영무기자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 전시회 열어

전북도립미술관서 내일

학생·전문가 협업 작품 선포

전주대학교와 전북도립미술관이 여름방학을 활용해, 학기 중에는 힘든 집중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대학 재학생 32명, 실감미디어 관심 일반인 7명, 미디어파사드 전문가 6명, 도내 실감미디어 관련 기업 3개사가 함께 했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게임, 역사, 관광, 시각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단장 한동승)은 8일 오후 6시30분부터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실감미디어 전시회'를 개최하고, 8일 총 45시간 동안 진행된 집중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 10점을 일반에 공개, 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가 일반 관객들이 사회문제 및 지역 문화 소재가 실감미디어 콘텐츠의 핵심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감미디어' 집중프로젝트 수업은 '소셜리빙랩'과 '로컬콘텐츠' 2과목으로, 학생들이 전문가, 업체와 함께 실감미디어 프로젝트를 기획/개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여 학생들이 전공과 학년별 차이를 극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10개 팀에 각각 전문가를 배정해 협업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특히 글로벌 기후 위기와 동학운동이라는 테마를 이해하고 이를 메타버스와 미디어파사드를 비롯한 실감미디어 혁신 기술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표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로컬콘텐츠실감미디어' 프로젝트 수업은 전북지역의 동학과 관련된 소재를 통해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했다. 4개의 프로젝트팀은 각각 동학농민운동 투어, 주요 격전기 기반 방탈출 게임, 숨겨진 인물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모험,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가상 메타버스 콘텐츠로 기획했다.

'소셜리빙랩실감미디어' 프로젝트 수업은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를 미디어 파사드 기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집중했다. 전북도립미술관 건물 3동 벽면에 대형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이미지나 영상 등 콘텐츠를 투사해, 관객들이 글로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총 6개 콘텐츠를 하나의 주제 의식에 맞춰 연결되며, 50분 동안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송미숙 기자 mss903@daum.net



전주대, 실감미디어 전시회

8일 전북도립미술관 야외마당서 개최

전주대학교와 전북도립미술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8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도립미술관 앞 마당에서 실감미디어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대학 재학생 32명, 실감미디어 관심 일반인 7명, 미디어파사드 전문가 6명, 도내 실감미디어 관련 기업 3개사 등이 함께한다.

특히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게임, 역사, 관광, 시각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에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단장 한동승)은 이날 총 45시간 동안 진행되

는 집중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 10점을 일반에 공개, 시연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가 일반 관객들이 사회문제 및 지역문화 소재가 실감미디어 콘텐츠의 핵심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전주대학교 박형웅 교수는 "이번 계절학기 프로젝트 수업은 다양한 학교, 전공을 가진 대학생과 현업 전문가들이 함께 글로벌 기후위기나 동학 등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기획, 제작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일반 시민도 그 결과물을 함께 즐기고 테마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와 전북도립미술관이 여름방학을 활용해 학기 중에는 힘든 집중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주대, 실감미디어 전시회 개최

전북도립미술관에서 학생, 전문가 협업 작품 10점 선봬

8일 오후 6시 30분~9시 전북도립미술관 야외마당서

전주대학교와 전북도립미술관이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학기 중에는 힘든 집중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전시회를 진행한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게임, 역사, 관광, 시각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단장 한동승)은 오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실감미디어 전시회'를 개최하고 45시간 동안 진행된 집중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 10점을 일반에 공개, 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가 일반 관객들이 사회 문제 및 지역 문화 소재가 실감미디어 콘텐츠의 핵심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감미디어 집중프로젝트는 '소셜리빙랩'과 '로컬콘텐츠' 2과목으로, 학생들이 전문가, 업체와 함께 실감미디어 프로젝트를 기획개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컬콘텐츠실감미디어 프로젝트는 전북지역의 동학과 관련된 소재

를 통해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했다.

4개의 프로젝트팀은 각각 동학농민운동 투어, 주요 격전기 기반 방탈출 게임, 숨겨진 인물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모험,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가상 메타버스 콘텐츠로 기획했다.

소셜리빙랩실감미디어 프로젝트는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이슈를 미디어 파사드 기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집중했다. 전북도립미술관 건물 3동 벽면에 대형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나 영상 등 콘텐츠를 투사하여, 관객들이 글로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전주대학교 박형웅 교수는 "이번 계절학기 프로젝트 수업은 다양한 학교, 전공을 가진 대학생과 현업 전문가들이 함께 글로벌 기후위거나 동학 등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기획, 제작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일반 시민들도 그 결과물을 함께 즐기고 테마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 전시회' 개최

전북도립미술관서, 학생·전문가 협업 소셜리빙랩·로컬콘텐츠 10점 선보여



전주대학교와 전북도립미술관은 여름방학을 활용해 학기 중에는 힘든 집중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주대학교와 전북도립미술관은 여름방학을 활용해 학기 중에는 힘든 집중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대학 재학생 32명, 실감미디어 관심 일반인 7명, 미디어파사드 전문가 6명, 도내 실감미디어 관련 기업 3개사가 함께 하였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게임, 역사, 관광, 시각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단장 한동승)은 오는 8일 저녁 6시 30분부터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실감미디어 전시회'를 개최하고, 8일 총 45시간 동안 진행된 집중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 10점을 일반에 공개, 시연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가 일반 관객들이 사회문제 및 지역 문화 소재가 실감미디어 콘텐츠의 핵심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감미디어 집중프로젝트 수업은 '소셜리빙랩'과 '로컬콘텐츠' 2과목으로, 학생들이 전문가, 업체와 함께 실감미디어 프로젝트를 기획/개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 학생들이 전공과 학년별 차이를 극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10개 팀에 각각 전문가를 배정하여 협업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글로벌

별 기후 위기와 동학운동이라는 테마를 이해하고 이를 메타버스와 미디어파사드를 비롯한 실감미디어 혁신 기술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표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로컬콘텐츠실감미디어 프로젝트 수업은 전북지역의 동학과 관련된 소재를 통해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했다.

4개의 프로젝트팀은 각각 동학농민운동 투어, 주요 격전기 기반 방 탈출 게임, 숨겨진 인물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모험,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가상 메타버스 콘텐츠로 기획했다.

소셜리빙랩실감미디어 프로젝트 수업은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이슈를 미디어 파사드 기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집중했다.

전북도립미술관 건물 3동 벽면에 대형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나 영상 등 콘텐츠를 투사하여, 관객들이 글로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총 6개 콘텐츠를 하나의 주제 의식에 맞춰 연결되며, 약 50분 동안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전주대학교 박형웅 교수는 "이번 계절학기 프로젝트 수업은 다양한 학교, 전공을 가진 대학생과 현업 전문가들이 함께 글로벌 기후위거나 동학 등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기획, 제작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일반 시민들도 그 결과물을 함께 즐기고 테마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행자 기자

미디어파사드로 보는 기후위기, 메타버스로 체험하는 동학

전주대·도립미술관, 내일 실감미디어 전시회 개최... 학생·전문가 협업작품 10점 선봬

전주대학교와 전북도립미술관이 여름 방학을 활용해, 학기 중에는 힘든 집중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전시회를 진행한다.<사진>

전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대학 재학생 32명, 실감미디어 관심 일반인 7명, 미디어파사드 전문가 6명, 도내 실감미디어 관련 기업 3개사가 함께 했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이번 프로젝트 수업은 게임, 역사, 관광, 시각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전주대학교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은 내일(8일) 저녁 6시30분부터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실감미디어 전시회'를 개최하고, 집중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 10점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가 일반 관객들이 사회문제 및 지역 문화 소재가 실감미디어 콘텐츠의 핵심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감미디어〉 집중프로젝트 수업은 '소셜리빙랩'과 '로컬콘텐츠' 2과목으로, 학생들이 전문가, 업체와 함께 실감미디어 프로젝트를 기획/개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여 학생들이 전공과 학년별 차이를 극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10개 팀에 각각 전문가를 배정해 현업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4개의 프로젝트팀은 각각 동학농민운동 투어, 주요 격전기 기반 방 탈출 게임, 숨겨진 인물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모험,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가상 메타버스 콘텐츠로 기획했다.

〈소셜리빙랩실감미디어〉 프로젝트 수업은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이슈를 미디어 파사드 기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집중했다.

전북도립미술관 건물 3동 벽면에 대형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이미지나 영상 등 콘텐츠를 투사해, 총 6개 콘텐츠를 약 50분 동안 상영할 예정이다.

박형웅 교수는 "대학생과 현업 전문가들이 함께 글로벌 기후위기나 동학 등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기획, 제작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크다"면서 "일반 시민들도 그 결과물을 함께 즐기고 테마를 공유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